

세네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197천 km ²	G D P	152억 달러 (2013년)
인구	13.5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1,118달러 (2013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 (CFA)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493.99 (2013년)

-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감비아를 둘러싼 국토 형태로 한반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음. 민족은 월로프족, 세렐레족, 풀라니족 등 흑인이 대다수이며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서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최빈국 중 하나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천연자원이 없고 경제성장을 이끌 뚜렷한 산업분야가 없어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동맹 중립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프랑스공동체의 구성국으로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와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였음.
- 2012년 Macky Sall 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아프리카 민주화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남부 Casamance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이 테러를 자행하여 치안이 불안한 실정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에너지, 광업,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4.6% 수준 전망

- 2012년 경제성장률은 가뭄으로 위축되었던 농업 생산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3.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에너지, 광업, 인프라 등의 투자 확대로 4.1%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연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인프라 부족, 세계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미루어볼 때 비현실적이나, 에너지, 인프라, 광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4년에는 4.6%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전력 공급의 안정성 개선과 인광석 생산량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량 증대, 금광 개발에 따른 광업 부문 성장, 수도 Dakar의 항공·해운 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서비스 부문 성장이 기대됨.

□ 재정수지 적자는 예산 감축, 보조금 규모 축소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

- 2013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공공 부문의 임금인상 억제와 예산 감축 등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GDP 대비 5.7% 수준으로 억제된 것으로 추정되나, IMF가 세네갈 정부에 제시한 목표치(4.0%)보다는 높은 수치임.
- 2014년에는 정부의 총지출 규모 감축, 국제 식량가격 하락세로 인한 보조금 지출규모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5.1%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축소, 세파프랑 약세 예상 등으로 인해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필수품 가격 상한제, 환율 안정,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평균 0.7%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 결정의 최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추진, 세파프랑 약세 예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서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공통 화폐인 세파프랑 사용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화정책 운용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경제성장률	4.1	2.6	3.7	4.1	4.6
재정수지 / GDP	-5.2	-6.7	-5.8	-5.7	-5.1
소비자물가상승률	1.3	3.4	1.4	0.7	1.6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의 부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

- 서비스 부문은 2012년 기준 GDP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분야가 없고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 제조업 부문(GDP의 22.7%)도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 또한 농업 부문(GDP의 15.3%)은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개시설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움.

□ 열악한 인프라, 낮은 보건 및 초등교육 수준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14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에 따르면, 세네갈의 인프라 수준은 148개국 중 113위(도로 97위, 기차 98위, 전기 공급 129위, 전화 117위)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세네갈의 보건 및 초등교육 수준은 148개국 중 131위를 기록하였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세네갈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85개국 중 154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나. 성장 잠재력

□ 수도 Dakar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 허브로 부상 중

- 세네갈은 육상 교통수단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WEF의 2013-14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항구와 항공시설은 148개국 중 각각 47위, 69위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Dakar 항구는 깊은 수심과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Dakar 공항은 서방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허브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Dakar에서 40km 떨어진 Diass 지역에 국제공항이 추가 건설 중임.

다. 정책성과

□ 향후 4년간 연 7%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국가경제사회발전전략 추진

- 세네갈 정부는 국가경제사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농업, 인프라, 관광, 교육,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농업(식량 특히 쌀 자급), 교육이 우선순위임.
 - 동 전략은 인적자원 개발 및 향후 4년간 연 7%의 경제성장률 달성, 2035년까지 신흥경제국 지위 도달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동 전략에 필요한 재원 중 22억 달러를 세계은행과 UNDP 등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청 설립 및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세네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청을 설립하고 투자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재정개혁에서 토지소유권 및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17개 항목의 투자환경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재외국민의 역할을 중시하여 재외국민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실시를 포함한 고강도 개혁 추진

- Sall 대통령은 정실인사 재정 낭비를 개혁하고자 전직 장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주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59개의 기관을 폐쇄하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 중임.
- Wade 정부 시절 수립된 2012~15년 중 투자규모 15억 달러의 에너지 개발 계획도 대표적인 감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음.
- 또한 조세 전반의 재검토,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업무 처리 지연의 해소,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의 제정(2014년 중) 등을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광업 부문의 성장, 농업생산 개선, 수입물가 하락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축소 전망

- 뚜렷한 수출품목이 없고 서비스 산업이 GDP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 2013년 GDP 대비 10.2%였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의 성장, 농업생산의 개선으로 인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14년 7.8%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600	-1,459	-1,618	-1,538	-1,198
경 상 수 지 / G D P	-4.7	-10.1	-11.4	-10.2	-7.8
상 품 수 지	-1,929	-2,978	-3,351	-3,208	-2,855
수 출	2,097	2,153	2,413	2,382	2,589
수 입	4,082	5,392	5,733	5,796	5,497
외 환 보 유 액	2,048	1,946	2,082	1,950	2,150
총 외 채 잔 액	7,235	8,321	9,289	10,105	10,890
총 외 채 잔 액 / G D P	53.9	52.8	57.9	60.1	61.6
D S R	13.9	12.6	7.8	7.4	7.0

자료: IMF, EIU, OECD.

□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노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예상

- 세네갈 정부는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해 민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외환보유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 보전 및 경제개발을 위한 외채규모 증가 전망

- 재정수지 적자 보전 및 경제개발을 위한 해외차입으로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전년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61.6%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2년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으나 민생부문의 개선 부진으로 새 정부에 대한 지지 하락세

- 2000년 취임하여 2007년 재선된 Abdoulaye Wade 대통령은 2011년 6월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부통령직 신설 및 아들인 Karim Wade 에너지 장관의 부통령직 임명을 강행하였음.

- 여기에 급격한 물가상승과 실업 문제가 겹쳐 민심의 이탈 가속화, 2012년 대선인 결선 투표에서 Macky Sall 후보가 66%의 득표율로 3선에 도전한 Wade 대통령을 꺾고 당선되었음.
- 그러나 2014년 7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여당 내 분열로 연정 와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급한 민생현안이 개선되지 않아 Sall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Casamance 반군의 테러 활동 지속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1982년 남부 Casamance 지역의 기독교계 세력이 동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반군조직인 Casamance 민주세력운동(MFDC)을 결성하여 정부에 대항하고 있음.
- 2005년에 반군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반군세력의 대부분이 협정 이행에 참가하였으나, 참가하지 않은 반군세력이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테러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현 정부는 반군과의 협상에 적극적이거나, Casamance 지역은 내전으로 인한 피해, 경제적 낙후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국제관계

□ 지역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다소 불편한 상황

- 세네갈은 아프리카 연합(AU), 사헬-사하라 국가 공동체(CEN-SAD) 등의 회원국으로 초대 Senghor 대통령 당시부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서부 아프리카 경제통화연맹(UEMOA)과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으로 지역통합에 적극적임.

- 기니의 Alpha Condé 대통령이 세네갈의 Wade 前대통령을 2011년에 있었던 자신의 암살 기도의 공모자라고 비난한 이래 양국 관계가 냉각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반군과 같은 부족인 국경 지대의 기니비소 주민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기니비소와의 관계도 불편한 상태임.
- 세네갈 국토 내에 존재하는 나라인 감비아와는 1982년 2월 “세네감비아 국가연합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89년 9월 해체된 바 있음.
 - EU의 유럽개발기금(EDF)의 지원으로 감비아의 Basse 지방과 세네갈의 Velingara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며, 동 도로의 개통으로 양국간 교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관계 강화 노력

- 세네갈 정부는 Wade 前대통령 재임 중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에의 접근으로 인해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 중임.
- 한편, Sall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만나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였음.
 - 중국은 세네갈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한편, 플랜테이션과 농산물 가공 등 기업형 농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기업들의 세네갈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고채무저소득국(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4년 8.5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 2005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8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두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2013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앞으로 단기 4,000만 달러, 중장기 6,000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가 연체 중임.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

- 쌍둥이 적자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은 60.1%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전년대비 8.8% 감소하는 등 외채상환 능력은 다소 취약함.
- 그러나 외채의 80%가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환 압력이 크지 않아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13. 5)	- -
OECD	6 (2013. 9)	6 (2012.10)
S&P	B+ (2013. 8)	B+ (2012. 8)
Moody's	B1 (2013. 9)	B1 (2011. 3)

* OECD 등급 원용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장기 공공부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위험에 대한 인수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년 10월 19일 (북한과는 1972년 9월 11일 수교)

- 주요협정 : 문화·경제·기술협력협정('8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08)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교역규모는 1.4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등을 중심으로 75백만 달러, 수입은 어류,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61백만 달러를 기록함.

<표 4> 한·세네갈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 출	62,733	57,280	75,291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등
수 입	21,018	39,629	61,813	어류, 수산가공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 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순이며 투자실적은 2013년 말 기준 신규법인수 총 9건, 투자금액 6백만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세네갈은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의 부재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광업, 인프라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증가로 2014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뚜렷한 수출품목이 없고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2014년에는 광업 부문의 성장, 수입물가의 하락, 농업생산의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Casamance 반군의 테러 활동, 인근 국가들과의 정치적 문제로 사회불안 요인이 있으나, 현재 심각한 수준의 시위나 사태를 일으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매년 외채잔액 규모가 증가하여 GDP 대비 과중한 외채부담으로 채무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함. 그러나, 낮은 D.S.R.과 양허성 차관 위주의 외채를 고려할 때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임민교(☎02-3779-5727)
E-mail : ymg@koreaexim.go.kr